

애정이 담긴 젖소관리



박 성 재
소번식경영아카데미 원장
(농학박사)

무더위가 예고되는 이 시기, 송아지의 호흡기 질병의 발생이나 소화 불량성 설사 등에 유의를 해야할 때입니다. 내년 번식을 목표로 하는 육성우가 있다면 충분한 조사료를 급여하여 분만 후 우유 생산 활동과 수태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양 관리와 번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낙농가에서는 연중 고른 번식을 통하여 꾸준한 우유생산을 위해 자궁과 난소의 활력유지를 위해 착유우의 BCS 관리와 비타민 무기물의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건유우, 착유우, 육성우, 송아지의 번식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젖소 관리 요령과 필수적으로 챙겨야할 사항 몇가지를 기술하고자 합니다.

건유우의 번식 관리

건유기 젖소는 최대 60일 전후에 분만을 하고 우유를 생산하면서 임신을 해야 하는 준비하는 시기이며 개체의 경제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분만 후 번식기관의 회복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젖소는 번식이 안 되면 경제수명은 바로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유우 때는 특히 과비가 아닌 분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BCS 3.2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여 분만 후 우유 생산과 재임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비만도(BCS, Body Condition Score)를 유지해야 하는 데, 특히 비타민과 무기물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 체내 송아지의 발육을 돕도록 해주면서 분만시 후산의 원활한 배출을 돕고자 적량의 주사나 공급이 중요하며 초유의 영양수준과 면역불질의 수준에 영향을 주므로 비타민과 무기물의 공급에 신경을 써주어야 분만우의 건강과 송아지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건유우 칸에서 분만이 이루어지는 데, 산실을 별도로 해

주는 것도 소의 분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분만우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며 분만 시 필요한 분만 보조기구나 송아지 제대 처치용 소독제 가위, 끈 등 필수적인 기구나 약품을 구비해 놓은 별도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소의 복지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별도 산실의 구비를 노력 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유우 칸에서 분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른 건유우와 합사하는 경우가 있어 바닥이 청결하지 못하여 생산 송아지 몸에 분이 묻어 분만한 어미가 송아지의 몸을 핥을 때 어미의 입 주변과 혀에 위생불량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갈짚을 보충하던지 별도 산실의 구비로 어미와 송아지의 건강복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착유우의 번식 관리

분만 후 나날이 우유를 생산하는 착유우는 자궁이 회복되면 다시 임신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는 우유 생산의 생리와 번식 생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축주는 우유 생산을 위한 영양관리와 번식을 위한 영양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기 중 우유를 최고로 많이 생산하는 시기에는 번식효율이 높지 않으므로 개체의 건강을 고려하여 우유 생산의 최고점을 약간 지난 시기를 번식집중기로 설정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이 2가지 생리적 상황을 고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착유소의 경우에는 체내의 비타민이나 무기물이 우유 속으로 빠져나가 번식생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분만 후 자궁이 회복되는 시점인 분만 한달 후부터 비타민과 무기물, BCS (2.75~3.0) 수준 유지를 하면서 번식에 집중하는 것이 착유우의 생리를 고려한 번식관리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착유우의 에너지와 단백질의 수준관리에 균형을 맞추면서 난소나 자궁에 영양을 공급하여 번식을 유도한다는 것은 소의 생리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고효율 번식방법이라고 필자는 권하고 싶습니다.

육성우의 번식예비 관리

젖소의 육성기 건강은 착유기를 대비한 평생 유지해야 하는 골격이나 체형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축주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육성우 시기에는 질 좋은 건초를 배불리 먹으면서 착유시에 대비한 제1위의 발달을 유도하여 유전적인 능력이 100% 발휘되도록 예비관리를 하여야 생애기간 동안 무병장수 할 수 있는 터전이 마



피부건강을 지켜주는 빛이 있는 우사

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서는 영양수준이 낮은 벼짚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수정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내 목장의 밀사로 성장하여 착유를 해야하는 소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착유소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육성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착유소의 무병장수가 결국 농가의 장기적인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이므로 육성우 관리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건강한 육성우는 번식기관의 형성과 성장에 도움을 주어 번식도 잘 되는 보너스가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체내외 모든 것이 구비되고 관리되는 소는 생리적 순환 고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당연히 번식과 우유생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건강 관리

송아지의 건강은 내 목장의 미래요, 추춧돌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송아지를 가족처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만 후 제대관리나 뿔 제거 관리 등은 기본이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포유를 하더라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포유를 해야 송아지는 축주를 진정한 부모로 느끼고 친구로 인식하면서 성장하는 데, 나중에는 소를 다루기가 매우 편하고 안정 사고 없는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서 우사 내 발정관찰시에는 곁에 와서 스킨십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 인공수정, 임신감정, 진료 등에 번식관리가 매우 안전해 집니다. 이러한 스킨십 포유방법이 곧 소의 행복감(복지)과 연결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를 소로 보지 말고 가족으로 친구로 동료로 대하면서 관리를 해보도록 권합니다. 그러면 소와 우리는 친구로 가족으로서 착유, 수정, 진료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안전사고를 줄이면서 소를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소에게 구타를 하는 주인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소와 인간간의 적과의 동침이 되므로 뿔질, 뒷발길질, 옆발길질, 몸으로 밀어붙이기, 머리로 위협하기 등 생각보다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소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행복한 소가 되도록 복지를 생각하면서 소를 돌보아야 소를 보

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와 우리가족의 행복이 절로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소는 야생의 성질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는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연중 많은 건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에게 사랑이 담긴 많은 스킨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챙겨야 할 번식관리와 조사료 관련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 ① 고효율 번식을 위해서 발정유기와 난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과 무기물의 공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개체간 기록을 잘 유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낙농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② 청예급여는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키나 유지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섭취가 부족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섭취량 증대를 위하여 청초를 햇볕에 1~2일 말려 수분을 줄여서 충분히 급여하는 방법이 유리하고, 호맥청예를 갑자기 많이 주거나 방목을 오래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인해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청예사료를 급여할 때는 7~10일의 여유를 두고 순치기간을 두어서 급여량을 서서히 늘려주어야 합니다.
- ③ 365일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물의 청결수 섭취량에 대한 관심입니다. 젖소에게 청소가 안 된 수조의 물이 급여되거나 불충분한 물 급여는 우유생산량 감소나 위 내의 효소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건강상 설사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정상적인 반추위 기능과 사료섭취량 증가,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며 물은 체내 혈액량을 유지하고,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공급하며, 착유우가 생산하는 우유의 약 87%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물의 중요함을 일 년 내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 ④ 6월에도 질병 발병 위험시기 이므로 정기적인 축사소독과 축사 출입구에 방역시설을 계속적으로 가동하여 낙농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육단계별 전염병 예방백신접종 프로그램 실행은 목장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송아지 및 후보 축에게 권장되는 백신프로그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누구나 할 수 없는 낙농기술로 우리에게 항상 1등급 우유를 생산하여 건강을 지켜주시는 감사함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